

## □ 규범 이해 및 적용 능력 측정 강화

- ‘규범 이해 및 적용’ 문항 유형은 법학전문대학원 수학능력이나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사고능력과 관련이 높음
- 종래에도 추리논증 영역에서 ‘규범 이해 및 적용’ 문항이 출제되고 있었으나 문항의 수나 특성이 제한적임
  - ‘규범 이해 및 적용’ 문항 유형은 규범 원리를 이해하여 제시된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현행 원리적용 유형에 속하나, 보다 세부적인 규범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는 특징이 있음
  - ※ 붙임2 ‘규범 이해 및 적용’ 예시 문항 참고
- ‘규범 이해 및 적용’ 문항을 확대 출제하여 관련 사고 능력의 수준을 보다 타당하게 검증하고자 함
  - 법학 지식의 평가를 배제하는 법 규정에 유의하여 가상의 규범 및 규칙을 적용하는 문항을 출제함

## □ 추리논증 영역 문항 수 및 시간 확대

- 전체 문항 수를 35문항에서 40문항으로 확대
  - 문항 수 증가에 따라 시험 시간을 확대하였으나, 문항 당 풀이 시간을 현행과 유사하게 유지하여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함
  - ※ 2009 ~ 2018학년도 및 개선안의 추리논증 영역 시간

	2009학년도	2010~2018학년도	개선안
시간/문항	120분/40문항	110분/35문항	125분/40문항
문항 당 시간	3분	3분 8.5초	3분 7.5초

## 2

## 언어이해 영역

---

### □ 제시문 및 문항 수 축소

- 현재 언어이해 영역은 11개 제시문 35문항(80분)으로 구성됨
  - ※ 2개 제시문에서 각 4문항, 9개 제시문에서 각 3문항 출제
- 하나의 제시문에서 4문항(5지선다형) 20개 선택지 출제 시 문항·선택지들 간 간섭 가능성 증가
- 10개 제시문에 대해 각 3문항 출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총 30문항(70분)으로 구성
  - 2016학년도 시험을 30문항으로 재구성하여 모의실험을 실시한 결과, 현행과 비슷한 수준의 적절한 신뢰도(Cronbach'α)를 유지함

## 3

## 논술 영역

---

### □ 사례형 논술 문항 출제를 통한 논증적 글쓰기 능력 측정 강화

- 현행 논술 문항은 긴 제시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, 독해 능력이 요구되는 유형임
  - ※ 2010-2017학년도 제시문(<보기>, <사례> 등 포함) 평균 글자 수: 약 5,500자
- 독해 능력은 언어이해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므로, 논술 영역에서는 사고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의 평가에 초점을 두고자 함
  - '제시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 능력' 측정 중심에서 '논증적 글쓰기 능력' 측정 중심으로 개선

- ‘사례형’ 논술 문항을 통해, 법학 교육 및 법조 현장에서 강조되는 방식의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논술 영역과 법학 교육의 관련성을 높이고자 함

**< 사례형 논술 문항의 형태 >**

- 문제 해결이 요구되는 상황(<사례>)을 제시함
- 관련된 원칙, 일반적인 이론적 견해 등을 제공할 수 있음
- 제시된 <사례>의 쟁점을 파악하고 각 쟁점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반대 의견에 대한 평가를 논거를 들어 서술하도록 함

- 2018학년도는 2문항 중 1문항, 2019학년도는 2문항 모두 ‘사례형’으로 출제
- ‘사례형’ 논술 문항은 문제 상황의 해결 방안과 판단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유형
- ※ 붙임2 ‘사례형’ 논술 예시 문항 참고

## 4    **법학적성시험 응시료 인하**

- 법학적성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는 248,000원으로 기존보다 22,000원(금년대비 8.15%) 인하할 예정임
- 응시인원과 시험의 안정적 출제·시행을 위해 수지균형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임
- 2015학년도 시험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는 유지
- 향후에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서민의 법조계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응시자 추이 등을 고려하여 응시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